

경북 대전환위 활동 마무리... 미래 성장전략 제안서 전달

투포트 경제-P·AX 경북 등 제시
복지·민생 정책 핵심 과제로 꼽아
이철우 도지사 “제안 적극 반영”

경상북도 대전환위원회가 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민보고대회를 열고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선9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3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위원회는 도지사 공약 이행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등 4대 대전환 분야로 종합·조정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성조 위원장,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대전환 분야에서는 'P·AX 경상북도'를 목표로 제조·에너지·바이오·항공방위산업 대전환과 경북투자청 설립, 정책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식품·문화·관광을 연계한 K-푸드 산업 육성 방안



김성조 경상북도 대전환위원장(왼쪽)이 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대전환위원회 도민보고대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민선9기 경상북도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함께 제시했다.

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 열일만항을 축으로 한 '투포트(Two-Port) 경제 전략'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포함한 K-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공동체 대전환 분야에서는 '경북형 온

(溫) 복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북 첫 곁을 연금, 어르신 건강방상, K보듬 6000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의 신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경북형 일자리 기본사회와 AI·디지털 교육 확대, 경북형 소상공인 뉴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4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제시하며 특별법의 우선 통과와 후속 보완, 주민의 견수럼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담은 '민선9기 경상북도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성조 위원장은 "위원회와 경상북도, 경북연구원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제안이 경북도정에 반영돼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서비스산업인 만큼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기업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관광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암군 월출산서 만나는 여름 인문여행

영암군이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월출산과 함께하는 1박 2일 인문여행을 운영한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도갑사 템플스테이에서 진행되는 체류형 인문프로그램 '영암 사계 인문학교 여름'이다.

영암 사계 인문학교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해 계절별로 운영하는 체류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이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숙성한다'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영암의 인문자원을 체험하며 삶과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경북교육청

2030 경북교육 중기계획 수립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2027~2030년 중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추진단 기획위원회는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추진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공약 이행 과제와 현장 의견,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전문가 면담, 학교 방문 등을 토대로 민선 6기 비전인 '저마다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구체화하고 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다. 교육 효과가 낮거나 학교 현장 부담이 큰 사업은 폐지·통합·축소하고 학생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은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271억 '돌파'

2032년 500억 조성 목표
군비로 매년 30억 출연

전남 해남군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이 6월 말 기준 271억원을 돌파하며, 2032년 500억원 조성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사업기금은 지난 1997년 시작해 2005년 60억원, 2012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예금이자를 활용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 해남군교육재단 출범을 계기로 장학금 및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재단으로 이관하고, 장학사업기금은 지출 없이 적립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기금은 미래 교육 자원 확보를 위한 순수 적립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군에서도 매년 30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금고 협력사업비와 이자수입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이 더해지면서 기금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학사업기금은 2021년 11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8억원, 2023년 157억원, 2024년 194억원, 2025년 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은 단순한 기금 확대가 아니라 해남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라며 "500억원 조성 목표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군민과 출향 향우, 기업 및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경남도, 함안낙화놀이로 동남아 공략

특화 관광상품 개발 나서

경남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함안 낙화놀이'를 활용한 동남아 관광역 유치전과 더불어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관광공사는 올해 대폭 확대된 동남아발 부산 직항노선을 활용한 신규 외국인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4개국 현지 유력 여행업계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경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3일과 4일 열린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에는 홍콩·대만 단체관광객 500여명을 유치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함안낙화놀이를 연계한 관광상품



지난 4일 경남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 감상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으로 일본 관광객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핵심 콘텐츠인 함안낙화놀이 페스티벌을 비롯해 진주, 김해, 통영, 거제, 함안, 남해, 산청을 방문해 이색적인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특색 음식, 액티비티를 즐기며 경남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경북형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성과 적용 실증기반 확대

포항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역량을 강화하고, 경상북도·구미시와 연계한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휴머노이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제조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등 제조산업이 집적돼 있어 고위험·고정밀 공정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성능 검증과 현장 실증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포스텍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뉴로메가 등 연구기관과 기업이 위치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다.

시는 AI 기반 자율예지보전, 고위험 작업용 모바일 자율로봇, 폐배터리 인간

-로봇 협업해체기술, 수중·안전로봇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실증·수요 확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AI 전환(AX) 거점 역할도 추진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으로 구미의 제조·부품 경쟁력과 포항의 연구개발·실증 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제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체계적 제조현장 등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실증 거점으로 성장하고, 경상북도·구미시와 협력해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과 제조 AI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 의장에 강무길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부산시의회가 지난 6일 오전 10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강무길 의원(3선·해운대구4)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의장은 재석 48명 중 44명의 찬성으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제1부 의장에는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재선·서구1)이 선출됐다.

제10대 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 37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구성됐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 맡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다.

제9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47석 중 45석을 확보해 사실상 단일 정당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 의석이크게 늘어난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경쟁 양상이 형성됐다.

강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같은 3선인 이종진 의원과의 경선을 거쳐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민주당도 당초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를 냈으나 협치 명분으로 후보를 사퇴시켰고,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의 의장·제1부 의장·상임위원장 선거는 모두 단독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강 의장은 선출 직후 "오직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시의원 전원과 전재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 뒤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속개해 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 선임까지 마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광안대로 출퇴근시간 무료 통행

부산시가 8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 통행 차량에 대한 요금 무료화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무료 통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부산시는 그동안 이 시간대 차량 통행료를 50% 할인 해주던 것을 8일부터는 전액 무료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시간대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며,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없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및 특수 차량은 1500원의 통행료가 적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병역명문가 주소제한 폐지 추진

경주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만 혜택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소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예우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하면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조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